

## [ 오피니언 ]

## 월/요/광/장

김화중



오는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정치권에선 이미 지난해부터 대선을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열기와 점점 달아오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런 현상을 뜻미묘히 하던데, 나는 당연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자리가 나라를 위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그 선택이 나와는 무관하다는 과거 군부독재 시대의 부끄러운 평계조차 맡 수 없다.

한국의 여성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 올해 대선에서 여성계가 나서서 여성후보를 지지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이나 질문을 받곤 한다. 우선 여러 진영에서 다수의 여성보도들이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데에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무조건 여성후보를 밀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남성 우위의 풍토에서 제도적 뒷받침과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양성평등의 정치관을 짜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여성계는 대선구제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 못지않은 자질과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때문에 정치에 진출하기 어려운 현실은 남성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에 이를 뜯어내고 있다.

## 대선의 해, 차기 대통령의 자질

정치에 여성의 진출이 많아지면 국민들이 식상해 하는 우리의 정치관을 신선하게 바꾸고 나라를 활기차게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제도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한 것은 없다. 다만 여성도 남성에 못지 않게 국정의 최고책임을 맡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후보라면 여성인 듯 남성이든 대통령의 직무를 감당해 낼 역량을 갖추고 국민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돌이켜 보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급속히 확산되고 뿌리를 깊숙이 내

려왔다. 마치 인류 역사상 최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뤄낸 것처럼 민주화도 최단기간에 해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기거나 하듯이 숨가쁘게 달려왔다.

민주화 투쟁의 선봉장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권력의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자신들의 뜻과 상관없이 카리스마적 리더십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러 우리는 국민들과 수평적으로 토론하기를 원하는 대통령을 갖게 되었다. 지구상에 이렇게 민족적인 나라가 또 어디에 있는가?

고 가면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상황이 더 이상 우리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나라를 이끌어 갈 세계화 대통령이 곧 차기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러 경로를 따라 대통령 후보가 정해질 것이다. 그 경로를 쫓아가면서 선택된 후보가 어떤 배경을 가졌고 어떤 생각을 가졌으며 그 역량이 어떤지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그 후보를 내세운 집단의 성격도 따져보아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틀에 매인 보수와 진보의 대립은 의미가 없다.

작금의 상황들은 이미 그 틀이 급격히 깨져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누가 세계의 흐름을 펴뚫어보는 안목을 가졌는가? 누구나 한반도에 평화를 전파시켜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이끌어 내겠는가? 여기에 도덕성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건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흥망성쇠는 물론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들을 해야 하고 장관을 비롯한 수많은 요직을 임명한다. 그런 대통령을 비도덕적 인 사람이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일 수밖에 없다. 올 겨울 좋은 대통령, 잘 뽑게 되기를 소망한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법조칼럼

류재규



‘열자(列子)’의 당문 편에서 유래한 ‘백아절현(伯牙絕絃)’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를 알아주는 절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말이다.

무릇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도 ‘백아절현’의 관계였으면 한다.

송사(訟事)에 익숙지 않은 의뢰인의 읍소를 하나 하나 자신의 일처럼 들어 주고 거기에 합당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주는 변호사 말이다.

그렇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기를 알아줄 변호사를 만나는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아무런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믿을 만한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이외에는 의뢰인 스스로 변호사

도, 소송을 하게 될 법원 등을 고려해 보수를 결정하는데 변호사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이다.

변호사 보수는 저렴하다고 해 반드시 폐소로 이어지고, 비싸다고 반드시 승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급적 변호사 보수를 비교하고 적정한 보수를 파악해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맞는 곳을 찾아야 한다.

넷째, 의뢰인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다. 고객이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는 안 된다. 적지 않은 선임료를 지급한 만큼 의뢰인은 스스로 법률서비스를 받는 주체라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소송이 종결되더라도 변호사

## 기고

우제길



미켈란젤로가 성 시스티나 예배당의 천장벽화를 완성한 1512년으로부터 대략 1세기 전, 플랑드르 화가 안 밤이 크 형제는 유화물감을 발명했다.

반 아이크 형제에 의해 이루어진 유화물감의 발명은 안료배합의 획기적인 발전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곧 미술의 역사에서 ‘회화의 발전’이라는 의미심장한 결과를 파생시켰다.

미술의 역사에서 회화는 미술 발전의 주요매체였다. ‘세계적인 명화’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회화는 마치 미술의 대명사인 것처럼 인식돼 왔고, 여전히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그리는 행위와 미술을 동등화 한다.

그러나 미술의 발전은 급격하게 변화

되었기. 담백한 맛이란 기본 미각에 충실히 맛을 의미한다. 미술의 기본은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행위욕구에서 출발하고 그 기본이 되는 요소는 외부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미술의 이러한 기본 요소가 도외시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대상물의 실체는 발견하기 힘들고 작가의 개념만이 관을 친다. 소위 언변이 좋은 작가라면 충분히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시킬 수 있고, 그만큼 현대미술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

현학적인 의미부여가 아니라 미술의 기초적인 감각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 신뢰하는 변호사 선택방법

를 찾아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둘째, 소송상담은 여러 곳에서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 자신의 송사를 해결해 줄 적합한 변호사를 고르기 위해서라면 고생스럽더라도 시간을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변호사 간의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 변호사의 의견을 불신해서는 안 된다.

모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솔로몬의 선택’을 보면 한 사안에 대해 출연 변호사들 간에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불명확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변호사들의 평가, 더 나아가 판사들의 평가가 각각 다를 수 있음을 당연한 것이다.

셋째, 의뢰인의 입장에서 승소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변호사의 보수이다.

변호사는 소송률가액과 소송의 난이

와의 인연은 계속 만들어가야 한다.

꽤 소해의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소송이란 승소 가능성은 높이기 위해 변호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변호사가 노력을 했지만, 폐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살다 보면 다시 송사에 휘말리거나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변호사와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찾기 위한 방법을 언급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것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긴 시간의 연속일 수도 있다.

소송이 길어지면 지치게 마련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려 마음 고생, 돈 고생하는 의뢰인에게는 ‘백아절현’처럼 의뢰인을 잘 알아주는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반드시 한번쯤 고려해보아야 사항일 것이다.

## 감각의 흥수, 관람자는 피곤하다

하는 세태만물이나 과격적인 것이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디지털 아트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이었고,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 매체의 발전은 이내 예술 영역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만 들키는 미술을 대명사인 것처럼 인식돼 왔고, 여전히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그리는 행위와 미술을 동등화 한다.

그렇다면 미술에 있어 담백함이란 무언가를 표현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미술의 본질과 근본적인 표현능력은 사라질 수 없고 또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라고 본다.

반 아이크 형제의 위대한 발명의 결

과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비단 미술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항상 기본과 근본의 토대 위에서 삶의 실마리를 찾아보았으면 하는 바램에서의 희망 그 자체를 의미한다.

〈화가·우제길미술관장〉

## 결혼·장례식장서 사용된 화환 재활용은 기만행위

최근에 일부 보수진영과 대학들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3(不)(불)정책’에 대해 폐지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물론 노대통령이나 교육당국에서는 학생들을 횡설竖說으로써 내쫓는 정책이기 때문에 폐지 불가능하다는 변호이 없다.

학생은 키우는 서민으로써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건 문제라고 본다.

3불정책은 사교육의 폐해와 교육기회의 불균형, 대학문영의 불투명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학생들을 데려고 있다가 졸업장만 달랑 내주는 게 더 문제다.

영어전문 어린이집을 보내는 집이 수두룩한 반면 지방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는 유치원도 없어서 못보내기도 한다. 우리사회에서 학력의 대물림으로 인해 부의 세습이 현실화됐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에 있어왔다.

이처럼 부의 편중이 심각한 판에 3불정책

마저 폐지된다면 계층간의 이동 통로가 막히고 현재 상황이 완전히 고착화될 것이다.

대학들은 입시제도를 뚫어고치기보다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 내보내는데 신경써야 한다. 지금처럼 학생들을 데려오면 4년간 대리하고 있다가 졸업장만 달랑 내주는 게 더 문제다.

▲나윤성·광주시 남구 봉선동

## 시설

## 한·미 FTA, 농산물시장 ‘빅딜’ 경계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양국간 이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FTA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협상 타결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이 26일부터 서울에서 FTA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발언의 진위가 주목된다.

정부는 쌀시장 개방만은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입장은 고수해왔지만 최근 정황을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농업도 시장 바깥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며 압박하고 나섰다. 최소한 덜 민감한 품목에 대해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발언의 진위가 주목된다.

이번 협상은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 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는 ‘끝장 토론’ 방식이다. 협상시한은 오는 31일 오전 7시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권 부총리가 손해를 보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쟁점은 수두룩하다. 쌀, 쇠고기 등 농산물과 자동차, 섬유 등이 미타결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양국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빅딜’을 통해 일괄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최대 걸림돌이 되고

## 여수엑스포 SOC 확충 차질 없어야

활주로 추가 연장을 밤문화 유치를 위한 여수권 주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3일 전남대 여수캠퍼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2세계박람회 SOC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관련 기관들은 도로, 철도,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박람회가 열리는 2012년 이전에 완공돼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박람회사무국(BIE)의 현지실사가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박람회 유치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다행한 일이다.

이날 보고회에서 국도 17호선 여수~순천 구간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의 경우 오는 2011년 개통할 수 있고,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는 오는 9월 실시 설계 후 11월 공사에 들어가 박람회 개최 전인 2012년 완공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공항 활주로 안전 구역 조성 사업은 올해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정부는 이 같은 주요 SOC 사업계획에 대한 확고한 지원의지를 내달 9일부터 실시되는 실사에서 실사단에게 확실히 인식시켜줘야 한다. 여수는 경쟁상대인 모로코의 탕헤르나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에 비해 인프라 측면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람회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SOC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정부차원에서 실사단에게 보여줘야 한다.

정부는 SOC 사업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2세계박람회는 여수가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최하는 행사다. 또 박람회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점에서 기반시설부터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無等鼓

중국의 문화사학자 위치우위(余秋雨)는 “오늘날 유럽은 몇십년 전의 외상값을 끊어버리고 마음 편히 낮잠을 즐기는 노인과 같다”고 갈파했다. 일종의 ‘늙은 권태’랄까. 국경은 없어지다시피 했고 회폐까지 통합된 지금의 유럽에서 1,2차 대전의 참화와 동서간 냉전 시대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유럽의 역사는 로마시대 아래 전쟁으로 얼룩졌다. 유럽인들은 유럽이라는 작은 대륙을 갈라 먹어가면서 민족간·종교간 갈등 없이 충돌하고 전쟁을 벌였다.

유럽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타락 현장이기도 했다. 자본주의의 속물로 성장과 부르주아의 탐욕, 타락이 극도에 달한 것이 19세기 유럽이었다.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1870년대 서유럽을 여행한 뒤 “유럽은 물질문명의 폐해로 인해 비극적 종말을 맞을 것이다”고 언했다. 세계대전으로 도스토옙스키의 예언은 적중했지만, 유럽의 저력이 만만치만은 않았다.

지난 25일은 유럽연합이 출범한지 50주년을 맞은 날이다. 또 다시 새로운 운동을 기약하는 통합 유럽이 부럽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k@kwangju.co.kr

체결됐다. 지금의 유럽연합(EU)의 모태인 셈이다. 6개 나라로 시작된 유